

추적하던 軍 침병조... 5월17일 송정리서 '의문의 피습'



신안 앞바다 침투→광주 잠입... 무기고 습격 등 주도 가능성
“계엄군 반발 차원에서 총기 탈취” 시위대 주장 설득력 없어

〈1면에서 계속〉 구체적인 규모와 침투루트·은신처는 첩보상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은 산발적인 시위가 격화됐고 경기 양평에 있던 20사단은 데모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해 태릉에 주둔해 있던 71사단과 합류했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동원사단이었던 71사단은 경찰력이 부족한 데다 관내 6개 대학 시위 대응으로 전력이 약화돼 육군본부에 지원을 건의한 데 따른 병력 이동이었다.

이들 2개 사단은 서울을 위수하던 수도군단 예하 전투부대였다. 북수의 증언에 따르면 육군본부의 첩보는 중앙정보부(중정)로부터 처음 전파됐다. 정보당국이 최초 첩보를 입수해 군에 하달한 것이다.

당시 사단 작전참모를 지냈고 장군으로 예편한 예비역 장성은 최근 본지 취재진에 “5·18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육군본부로부터

터 전남 신안 앞바다를 통해 북한 공작조가 들어왔다는 첩보가 전파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초 전파일을 5월15일로 특정했고 첩보의 출처로 ‘중정’을 지목했다.

5·18을 목전에 두고 북한 침투조가 전남 지역에 잠입했음을 우리 정보당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언자는 “최초 첩보는 중정을 통해 육군본부에 전파됐고 작전참모를 거쳐 사단장 이상에게 보고됐다”며 “서울을 지키는 사단급 부대들이 이 첩보를 인지하고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증언에 따르면 이들 사단의 작전 참모진은 평소 시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공조하기 위해 정보를 교류했다. 육군본부로부터 구체적인 투입 및 차단 지시가 직접 내려온 것도 이 무렵이다. 그 와중에 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1980년까지 북한의 침투 다발지역으로 꼽히던 전남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백부위 해안. 간조시 차량이 다닐 정도로 땅이 건조한 지역이다. 5·18 직전 이곳과 해안선이 맞닿은 남쪽 신안군 앞바다를 통해 북한 공작조가 침투했다는 첩보가 군에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다. 스키아데일리

학생 데모대가 아닌 북한의 침투 첩보가 육군본부부터 새롭게 하달된 것이다. 증언자는 “5월부턴 퇴근하지 못할 정도로 중정 첩보가 육군을 통해 계속 전달됐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회고했다.

육군의 작전참모진은 육본 작전참모와 수도군단장 휘하의 군단 작전참모·사단 작전참모·작전과장·작전장교 등으로 구성된 다. 증언자는 “사단 참모진끼리도 이 첩보

를 공유했다”고 했다. 당시 71사단장은 백운택 장군, 20사단장은 박준병 장군이었다. 증언에 따르면 두 사단장은 상의한 뒤 침병조를 전남에 급파하기로 했다. 육본은 직접 침병을 보내 빨리 사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20사단 수색중대는 오히려 송정리 일대에서 군용차량을 탈취당하고 부

대원들은 부상했다. 이에 대해 증언자는 “당시 상황일지와 보고문에도 모두 기록된 사실”이라고 했다.

군 북한정보 관련 부서에 있었던 예비역 장군도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신안 앞바다를 통한 침투 첩보가 들어왔고 군이 정식 대응했다”고 확인했다. 그와 또 다른 예비역 장교 출신의 5·18연구자들은 구체적인 해안 침투정보에 대해 본지에 보충

설명했다.

5·18을 전후해 전남 경찰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나주 금성파출소는 19일 경력이 빠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20일엔 안병하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종적을 감추 문제가 됐다. 5·18 직전에도 곳곳에 치안 공백 사태가 벌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됐다. 사정이 이러자 군은 무기고 피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남 향토사단인 31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명령이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후 투입된 부대가 7공수여단이었고 5월18일 신원미상의 청년들이 7공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파출소에 방화하면서 5·18이 본격화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이튿날인 19일 나주 금성 파출소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에서 칼빈과 M1AK소총 등 769점이 탈취된 것이다.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상황일지에 따르면 군·경은 총기류 외에도 LMG 4정·LMG 실탄 6만 발과 수류탄 182개를 빼앗기면서 시민과 계엄군의 비극적인 유혈 교전사태가 시작됐다.

한편 이번 취재 과정에선 김대중 당시 국민연하 공동의장의 5·18 전후 행적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들도 있었다.

광주=허경 기자 kh@skyedaily.com

홍범도 홍상 이전 논란에... 육사 동창회 “거수경례할 인물 선별 신중해야”

“철거 아닌 이전”... 광복회 비롯 몇몇 독립운동가 단체 반발
독립운동·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은 인정하지만 정통성 훼손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홍범도 장군 홍상 이전(移轉)’ 관련 논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철거가 아니라 더 적절한 장소로 옮긴다’는 취지지만 광복회를 비롯한 몇몇 독립운동가 기념단체들이 반발 중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29일) 육사 총동창회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과 함께 ‘홍범도 홍상’ 문제는 일시적 물갈퀴 현상이 아니다. 건국 이래 몇 번의 역사적 고비마다 유보된 ‘역사논쟁의 본격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 유공자’ 사이에 일정한 구분 및 원칙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자유민주 법치를 토대로 한 현대 국가의 탄생 배경 및 작동원리를 배우거나 이해할 기회가 없었다. 중세 내지 전근대적 왕토(王土)로서의 ‘나라’와 혈연·문화공동체적 집단으로서의 ‘종족’ 개념이 근대적 ‘네이션(국민)’ ‘시티즌(시민)’과 혼동돼 온 것이다. ‘대한민국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다’ 식의 주장이 대표적으로 이런 오해에서 나온다.

육사 총동창회의 29일 입장문에 따르면 2018년 교내 조형물 설치 당시 홍 장군 홍상 배치에 의문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돼 논란이 이어졌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홍상을 철거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하자 홍범도 장군 홍상만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

다. 홍 장군 홍상의 육사 교정 내 설치가 부적절한 이유는 충분하다. 소련 역대 독립군 무장해제 과정에서 큰 희생을 넣은

자유시 참변 재관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소련군 편입과 레닌의 후원을 받은 행적 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장군은 독립운동 공로 외 스탈린 시절 연해주 한인들이 잠재적 일제 스파이로 간주돼 중앙아시아에 강제이주

당한 후 극한 환경에 처했을 때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점 등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건국 이전 별세했기에 반(反)대한민국 행보는 없다. 홍 장군에 대한 1962년 서훈 역시 더 적절한 분류와 명칭이 필요할 뿐 그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총동창회는 입장문에서 역사적 평가가 복잡한 인물의 조형물을 배치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6·25전쟁을 사주하고 참전한 북한군 중공군 소련군에 종사했거나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한 사실이 확인된 인물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런 인물의 홍상에 육사 생도들이 거수경례하도록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영심 기자 imms@skyedaily.com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0.54kWh/일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능 끄기 0.1kWh/일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올여름 계획적으로. 1kWh 줄이기로부터 시작

올여름엔 휴가 계획보다 에너지 계획을 먼저 세워보세요. 전기 사용 패턴을 조금씩만 바꾼다면 어렵지 않게 하루 1kWh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국민의 앞자리에 **한국전력**

하루 1kWh 줄이기 01.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유지하기 0.41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일 0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0.32kWh/일